

논·밭에 조상 모시며 숭배... 삶과 죽음 '아름다운 공존'



베트남 어디를 가더라도 논과 밭에 모셔진 조상의 묘를 쉽게 볼 수 있다. 베트남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과 가까운 곳에 조상의 묘를 모시고, 논과 집을 오가며 예를 올린다. /베트남 하노이=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시아 문화 원류를 찾아서 <43>

5부 베트남 편

8 장례문화

첫 안장 뒤 3~5년 후 이장

묘 자체로 후손들과 교감

조상모시기, 종교 보다 중시

푸토성 = 김경인 기자 kki@kwangju.co.kr

“한 시대의 문화는 사람들의 삶의 공간에서 나오지만 그 문화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탄생과 죽음이다.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은 탄생과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베트남 어디를 가더라도 드넓게 펼쳐진 논밭을 쉽게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논밭 곳곳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거나, 울창한 숲에 있는 묘지들이다. 베트남 농부들은 논에 있는 조상의 묘 옆에서 소를 끌고, 풀을 뽑고, 벼를 베고, 조상의 묘 자체가 베트남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것이다.

그들이 논밭 한가운데 놓인 묘 옆에서 땅을 흘리고, 또 자신들의 삶을 나누고 있는 모습에서 ‘어쩌면 베트남에서는 삶과 죽음의 간극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상과 늘 함께한다는 그들의 ‘조상 숭배’ 문화가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

베트남 사람들의 조상 숭배 문화는 죽음을 해석하는 시각에 녹아 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혼이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마지막 숨을 내뿜을 때 그 사람의 혼과 백이 분리된다는 것인데, 혼은 신령이 거뒀고 백은 집에 남아 있다고 생

각한다. 베트남 사람들은 조상의 혼과 백을 붙잡기 위해 비단으로 시신을 덮는데, 이 비단을 혼백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혼백을 지붕으로 가져가 함께 날려보낸다. 죽어서도 혼과 백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장례는 3~5일 장으로 치러진다. 한국 전통 장례 문화와 비슷하게 방자의 집에서 장례를 치르고, 친척과 마을 사람들이 방문해 애도한다. 그리고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장지로 향한다.

베트남에서 묘는 ‘영원한 안식처’라는 개념이 강하다. 그만큼 묘지에서 조상에 대한 베트남 사람들의 정성을 쉽게 볼 수 있다. 조상 숭배 문화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명당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수맥이 흐르지 않는 곳이다. 수맥이나 물이 묘 옆에 흐르면 후손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관념이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달랐다. 그 이유는 베트남이라는 나라 자체가 비가 많이 내려 땅속에 습기가 많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논이나 마을 옆 들과 그리고 자신들의 집과 가까운 마을의 공동묘지에 조상의 시신을 안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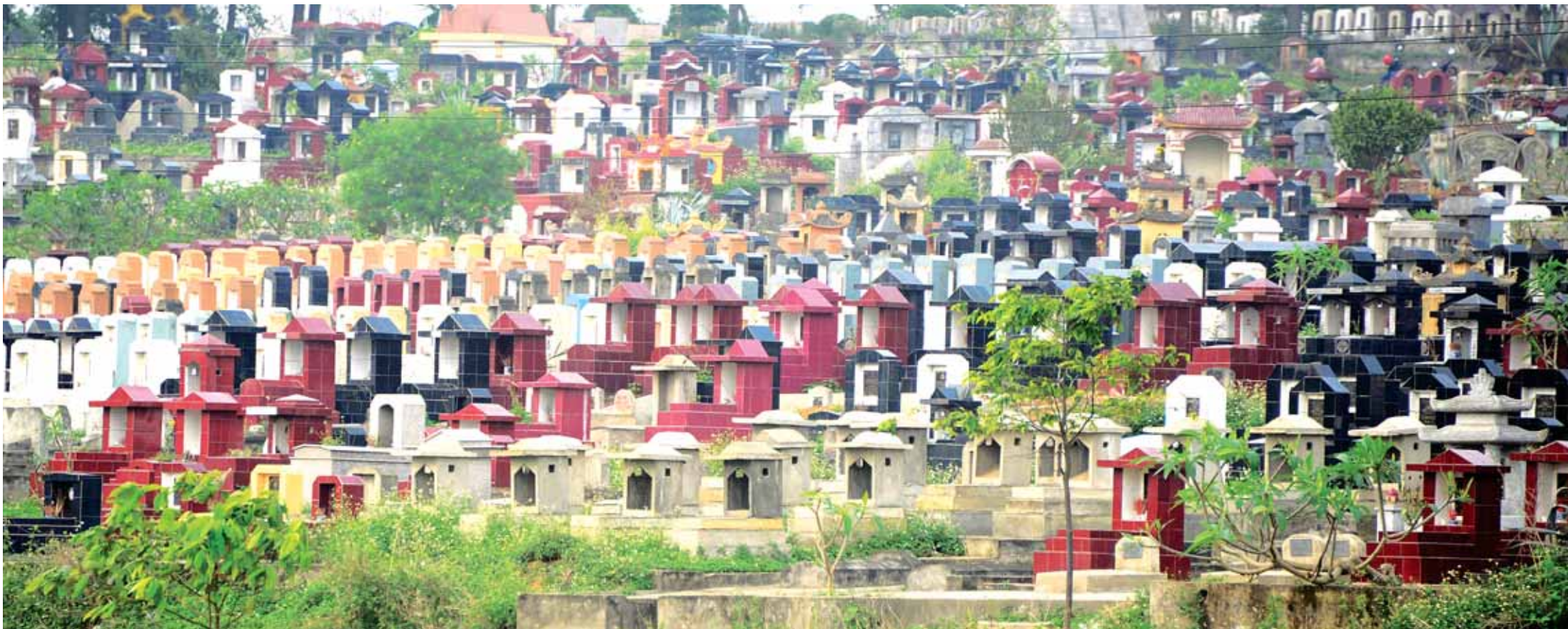
이 때문에 베트남에는 ‘개장식’이라는 독특한 장

례 문화가 존재한다. 1차로 조상의 시신을 안장한 뒤, 3~5년 후에 이장을 하는 것이다. 습기가 많은 베트남의 특성상 그 기간이 흐르면 시신은 뼈만 남게 된다. 이때 묘를 개장해 뼈만 깨끗하게 닦아 석관이나 향아리에 모신 뒤 생전에 고인이 묻히길 원했던 장소에 다시 안장하고 비석을 세우게 된다.

비석에서도 베트남 사람들의 정성을 엿볼 수 있다. 묘지의 형태는 같지만 유교, 불교, 천주교 등 각자의 종교 양식에 따라 비석의 형태는 각기 다르다. 종교를 떠나 하나 비슷한 점은 묘지에 향을 피울 수 있는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 놓인 향로가 비에 젖지 않도록 지붕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집과 눈을 오가며 조상의 묘에 들러 예를 올린다.

비석 양식은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변화했다. 최근에는 프랑스 식민지 시대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풍이 느껴지는 비석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푸토성에서 만난 농부 즈영 귀 바우(60)씨는 “조상 숭배는 모든 종교를 넘어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문화 중 하나”라며 “베트남에서 죽음은 한 사람의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대의 조상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잘 이끌어 주기를 바라면서 대부분 사람이 묘와 별개로 집에 사당을 모시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 사람들은 종교에 상관없이 조상을 섬기는 마음을 담아 묘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사진은 푸토성 한 마을의 공동묘지 모습. /베트남 푸토성=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하노이대 드영 뚜언 안 교수



“베트남, 고대 국가에 뿌리 53개 소수민족 재조명 등 뿌리찾기 이어 나갈 것”

“베트남은 중국으로부터 천년 간 침략을 받았지만 무자정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다. 중국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문화가 중국에서 비롯했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립하노이대학교 드영 뚜언 안 교수는 베트남 문화는 중국이 아닌 베트남 고대 국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베트남은 베트남 전쟁 등 수많은 아픈 역사를 겪으면서 그동안 뿌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최근 국가차원에서 실시한 ‘락 비엣’국과 ‘료로’국 등 베트남의 기초가 된 고대 국가 연구결과에서는 중국보다 앞선 문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베트남에서도 중국 위주의 사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우리의 개천절과 같은 ‘국조 흥룡 제사일’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盛大하게 치르고 있다.

베트남 문화의 토양을 일궈온 ‘소수민족’에 대한 정부차원의 재조명 작업도 활발하다.

그는 “베트남 역사는 비엣족과 53개 소수민족이 유지, 발전시켜왔다”며 “소수민족이 베트남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잊지 않기 위해 참사관 박물관 등을 만들어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영 뚜언 안 교수는 베트남은 북부에는 원류가 있고, 중부에는 역사 이야기가 있으며, 남부에는 근대사가 존재하는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부에는 고대 국가 ‘락 비엣’국 등이 있고, 중부에는 베트남 역사를 이어나온 ‘참파왕국’과 ‘후에’, 남부에는 남북으로 갈라져 전쟁을 치른 베트남의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의미다. 북부에서 시작된 베트남이 중국에 막혀 남으로 뻗어나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우회적으로 설명한 셈이다.

그는 “특히 탄생과 삶의 끝을 의미하는 혼례와 장례 문화가 한국과 많이 닮았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하노이=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돌잔치, 피로연, 침수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90석, 68석 40석28석, 16석 돌완비)

| 구분 | 영업시간 | 성인(중학생이상) | 취학어린이(초등학생) | 미취학어린이(5~7세) |
|---------|-------------|-----------|-------------|--------------|
| 평일 | 11:30~22:00 | 25,000원 | 12,000원 | 8,000원 |
| 토.일.공휴일 | 11:30~22:00 | 29,000원 | 18,000원 | 12,000원 |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YONAMJA 유스퀘어점

매콤한 오남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몽골레
Yonggole
₩10,800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herb crispy chicken steak
₩10,800

핫 스파이스 오렌지 소스 포크 스테이크
Hot Spicy Orange Sauce pork steak
₩10,800

허니고곤졸라 피자
Honey gorgonzola pizza
₩12,900

오시는 길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